

## 「국정운영 5개년 계획」 발표

-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「국민보고대회」를 통해 앞으로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「국정운영 5개년 계획」을 발표함.

-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재원·입법 추진계획과 국정과제 관리 및 공유·확산 방안도 포함되어 있음.

### ○ 국정과제 구성

- ‘국민이 주인인 나라,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’을 비전으로 제시
- 국정 원칙으로 ‘경청과 통합’, ‘공정과 신뢰’, ‘실용과 성과’를 내세움.
- 5대 국정 목표로 ‘국민이 하나되는 정치’, ‘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’, ‘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’, ‘기본이 튼튼한 사회’, ‘국익 중심의 외교안보’를 세움.
- 총 123대 국정과제와 564개 실천과제가 제시됨.
- 국정과제는 정치·행정, 경제, 사회, 외교·안보,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, 당 정책공약집, 약당 공약 및 국민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출함.

-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국정과제로 ‘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’, ‘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’, ‘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’, ‘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’ 등이 포함됨.

### ■ 국정과제 체계도 ■

5대 국정목표	국민이 하나되는 정치	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	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	기본이 튼튼한 사회	국익 중심의 외교안보
23대 추진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</li> <li>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</li> <li>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I 3대 강국 도약</li> <li>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</li> <li>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</li> <li>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</li> <li>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</li> <li>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</li> <li>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</li> <li>희망을 실천하는 농산어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</li> <li>내 삶을 돌보는 복지</li> <li>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</li> <li>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</li> <li>누구나 존중받는 일터</li> <li>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</li> <li>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</li> <li>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</li> <li>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</li> <li>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</li> </ul>
123대 국정과제	19개	29개	23개	37개	15개
564개 실천과제	79개	137개	113개	173개	62개

출처: 국정기획위원회



## 세계 경제 동향

### ●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2.7% 상승 | 2025-08-12 | 미국 고용통계국

- 2025년 8월 12일 미국 고용통계국이 발표한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(CPI)에 따르면,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.7%를 기록함.
  - 전월 대비\* 물가 상승률은 0.2%로 지난 6월(+0.3%)보다 상승폭이 둔화됨(주간브리프 Vol.28).
  - 물가 상승을 이끈 주요 항목은 주거비로, 전년 동월 대비 3.7% 상승함.
- \*계절 조정을 거친 지난 한 달간 변화
- 식품 부문은 전월 대비로는 변동이 없었으나(0.0%), 전년 동월 대비 2.9% 상승함.
  - 전월 대비 식품 물가의 경우, 외식비가 소폭(0.3%) 상승했으나 가정 내 식품(-0.1%)은 하락하였음.
  - 전년 동월 대비 식품 물가는 육류·기금류·어패류·계란의 가격 상승(5.2%)이 전체 물가 상승을 영향을 미침.
- 에너지 부문은 전월 대비 1.1%, 전년 동월 대비 1.6% 하락함.
  - 유가 하락이 전체 에너지 가격 하락에 크게 기여하였음. 7월 유가는 전월 대비 2.2%, 전년 동월 대비 9.5% 하락함.
  - 반면, 전기와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0.1%, 0.9% 하락하였으나, 전년 동월 대비로는 각각 5.5%, 13.8% 상승하였음.
-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균원물가는 전월 대비 0.3%, 전년 동월 대비 3.1% 상승함.
  - 전월 대비 의료비(0.7%), 항공료(4.0%), 여가(0.4%), 가구(0.4%), 중고차(0.5%) 등의 물가가 상승함.
  - 반면, 전월 대비 숙박(-1.0%), 통신(-0.3%) 등 일부 서비스 가격은 하락함.
- 주거비·의료비·자동차 보험료 등이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으나,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폭을 일부 상쇄하고 있음.
- ❖ 지난 4월부터 이어지는 미국 고용 시장 둔화 흐름과(주간브리프 Vol.30), 2%대를 유지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오는 9월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음. 다만, 예상보다 7월 생산자물가지수(전월 대비 0.9%, 전년 동월 대비 3.3% 상승)가 높게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에 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.

### ■ 2024~2025년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(전년 동월 대비) ■





## 국내 경제 동향

## ● 2025년 6월 경상수지 142.7억 달러 흑자 | 2025-08-07 한국은행

- 2025년 8월 7일 한국은행은 「2025년 6월 경상수지(잠정)」를 발표하였음. 6월 경상수지는 142.7억 달러 흑자로, '23년 5월부터 2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함.
- 지난 5월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41.3억 달러 증가하였으며(101.4억 달러→142.7억 달러), 이는 상품수지 흑자 폭 확대와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한 본원소득수지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임.
- (상품수지) 수출이 603.7억 달러, 수입은 472.1억 달러로 131.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.
- 수출: 반도체(11.3%), 선박(64.8%) 등이 상승세를 주도하는 가운데, 화공품(5월 -12.3%→6월 -3.6%), 승용차(5월 -5.6%→6월 -0.3%)의 수출 감소세도 둔화됨.
- 수입: 에너지류(-18%)를 비롯한 원자재 수입(-6.4%)이 감소하였으나, 자본재(14.8%)와 소비재(7.6%)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입이 증가함.

\*전년 동월 대비

- (서비스수지) 여행(-10.1억 달러), 기타사업서비스\*(-15.4억 달러) 등을 중심으로 25.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.  
\*연구개발서비스, 전문·경영컨설팅서비스, 건축·엔지니어링서비스 등
- (본원소득수지) 지난 5월 대비 20.1억 달러 증가하면서 41.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.
  - 전월 대비 배당소득 흑자 폭 확대(15.9억 달러→ 34.4억 달러)
- (이전소득수지) 5.3억 달러 적자

## | 2023년 4월~2025년 6월 경상수지 |





## 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### ● 일본 농림수산성 2025년 상반기 농림수산식품 수출 실적 발표 | 2025-08-04 농림수산성

-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5년 상반기(1~6월) 농림수산식품 수출 실적이 8,097억 엔으로, 전년 동기(7,011억 엔) 대비 15.5% 증가했다고 발표함.
  - 부류별 수출액: 농산물 5,231억 엔, 임산물 371억 엔, 수산물 1,994억 엔, 소액화물\* 501억 엔
  - 국가별 수출액: 미국 1,410억 엔, 홍콩 1,068억 엔, 중국 902억 엔, 대만 806억 엔, 한국 507억 엔
- \*소액화물은 1품목당 20만 엔 이하로 수출입 신고 시 무역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화물이며, 별도 조사를 통해 집계
- \*참고로 우리나라 2025년 상반기 농식품(K-Food) 수출은 51.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.4% 증가
- 2025년 상반기 일본의 수출 1위 국가는 미국(1,410억 엔)이며, 전년 동기 대비 일본의 수출액 증가폭이 큰 국가는 미국, 중국, 한국 순임.
  - 미국: 2025년 4월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의 가리비, 녹차, 방어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수출액 254억 엔(22.0%) 증가
  - 중국: 원목, 일본주(酒), 배합 조제사료 수출의 증가로 인해 수출액 118억 엔(15.0%) 증가
  - 한국: 인스턴트 커피, 맥주, 정어리 수출 증가로 인해 수출액 93억 엔(22.3%) 증가
- 주요 농축산식품 중 녹차, 쇠고기, 주류(위스키 및 일본주(酒)) 등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.
  - 녹차: 건강 지향 트렌드 및 일본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, 특히 말차(抹茶) 등 분말 차 형태가 유럽·미주·동남아 중심으로 수출 104억 엔 증가
  - 쇠고기: 대만과 태국의 외식업체 및 소매를 중심으로 신규 유통 경로 개척에 따라 수출 44억 엔 증가
  - 주류(위스키 및 일본주(酒)): 싱가포르 및 중국의 재고 해소에 따라 위스키 수출 36억 엔 증가, 중국 및 홍콩의 일본 방문객 증가에 따른 일본주 인지도 상승으로 수출 24억 엔 증가
- 농림수산성이 수출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수출 증가 요인으로는 ①해외 일본 음식점의 증가, ②일본 음식에 대한 세계적 관심 확대, ③일본 방문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인지도 향상, ④건강 지향 식품 소비 확대 트렌드 등이 있음.



○ EU, 2025년 단기 농업시장 전망 발표 | 2025-07-28 European Commission

- 유럽연합 집행위원회(European Commission)는 2025년 봄 기준 단기 농업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,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의 주요 품목 생산·수급·무역 동향을 분석함.
  - 유럽연합의 단기 농업시장 전망 보고서는 연 2회(봄·가을) 정기 발행되며, 전년도 하반기 및 당해 상반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기 시장 동향 진단 및 전망 제공
  - 해당 보고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, 기후변화, 무역정책 변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비 회복, 수출 증가, 가격 안정 등 긍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EU 농업 전반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.
  - 전반적인 식품 물가 상승은 둔화되고 있으나, 품목별 생산 및 수급 상황에 따라 차별적인 양상이 나타남.
- 주요 곡물·육류·유제품 생산은 회복세를 보였으며, 일부 과일·채소는 기상악화로 작황 부진이 나타남.
  - (곡물) 생산량 4.1% 증가 전망, 수출 +26%, 수입 -19%로 무역수지 개선 기대
  - (유지작물) 유채·해바라기 등 오일 및 단백질 작물 생산 약 12% 증가
  - (설탕) 2024/25년 생산 증가, 2025/26년에는 면적 감소로 생산 둔화 전망
  - (과일·채소·올리브유) 기상이변으로 토마토·복숭아·사과 작황 부진, 올리브유 가격 급락
  - (유제품) 원유 공급 안정, 치즈·유청 중심 생산 증가, 수출 비교적 안정
  - (육류) 돼지고기 회복세, 쇠고기·가금류 수요 견조, 수출 확대는 제한적
- 유럽연합은 이러한 시장 전망을 바탕으로,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후 이슈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기반 강화와 정책 유연성 확보 방안을 검토 중임.
  - 특히 공급망 복원력 제고, 기후 친화적 농업 전환, 무역 다변화 등이 중장기 전략과제로 제시됨.

| 주요 품목별 전망 요약 |

품목군	핵심 전망
곡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25/26년 EU 곡물 생산은 전년 대비 4.1% 증가 전망</li> <li>- 수출은 +26%, 수입은 -19% → 무역수지 개선 기대</li> </ul>
유채·해바라기 등 유지작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생산량 약 12% 회복, 오일 및 단백질 작물 시장 회복 흐름</li> </ul>
설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24/25년 생산량은 6.5% 증가하였으나, 2025/26년에는 약 8% 감소할 것으로 전망</li> <li>- 수출 감소·수입 증가 가능성 존재</li> </ul>
과일·채소·올리브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올리브유 생산 증가로 가격 급락</li> <li>- 토마토·복숭아·사과 등은 기상악화로 작황 부진 및 교역 변화 전망</li> </ul>
유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원유 공급 안정적, 치즈·유청 중심 생산 증가</li> <li>- 전체 수출량은 비교적 안정적 유지될 전망</li> </ul>
육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돼지고기 회복세, 쇠고기·가금류 수요 안정적</li> <li>- 수출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</li> </ul>



## 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### ● 식량농업기구(FAO)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1.6% 상승 | 2025-08-08 FAO, 2025-08-09 농림축산식품부

- 유엔 식량농업기구(FAO)가 2025년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발표함.
  - FAO는 2025년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를 123.9포인트로 발표하였으며, 이는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수치임.
  - 식량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.3% 상승, 전년 동월 대비 1.0% 하락하였으며, 유지류 및 육류 가격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.
- 주요 품목별 전월 대비 가격 동향은 다음과 같음.
  - (유지류) 팜유·대두유·해바라기유의 글로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로 7.1% 상승
  - (육류) 소·양·닭고기 가격 상승 영향으로 평균 1.2% 상승, 돼지고기는 하락
  - (곡물) 밀·옥수수 공급 확대에 따라 0.8% 하락
  - (유제품) 버터·분유 가격 하락으로 0.1% 하락
  - (설탕) 인도·태국 생산 확대 전망에 따라 0.2% 하락
- FAO는 2024/25년도 세계 곡물 시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함.
  - 세계 곡물 생산량은 28억 4,770만 톤으로, 전년 대비 0.3% 감소
  - 곡물 소비량은 28억 7,030만 톤으로, 전년 대비 1.0% 증가
  - 이에 따라 세계 곡물 재고량은 1.8% 감소, 잡곡 재고는 6.7% 감소할 것으로 전망
-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 식량 시장 불안이 국내 가격과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대응체계를 운영 중임.
  - (시장 모니터링) 주요 곡물 수출입 동향 및 물류비·운송 리스크 상시 점검
  - (수급 안정) 도매시장 및 소비자 가격·수급 동향 분석, 사전 대응 계획 수립
  - (대외 협력)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식량 위기 대응 협력 지속
- 아울러, 농식품부는 국제 식량 가격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, 국내 생산 기반 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병행해 나갈 계획임.